



“금기시 하는 성인용품 얘기 유쾌하게 할 수 있어 좋았죠”

종영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 김성령

성인용품 방문 판매하는 주부 4인방 여배우들이 주역으로 나서 이야기 풀어가 독특 소재, 가볍게 풀 수 있다는 것 보여줘

성(性)이 금기시되던 1992년 한 시골 마을. 명문 여대를 졸업한 신여성 오금희(김성령 분)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는 동생 한정숙(김소연)으로부터 새로 시작한 성인용품 방문 판매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렇게 말하며 거절한다.

“정숙씨 알다시피 난 그렇게 딱 막힌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열린 사람도 아니야.”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에서 오금희를 연기한 배우 김성령(57)은 이 대사가 특하나 마음에 와닿았다고 꼽았다. 그는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며 “이번 드라마를 통해 나 스스로가 조금 더 깨어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정숙한 세일즈'는 금기를 깨고 성인용품 방문 판매에 뛰어난 주부 4인방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소재가 소재다 보니 다양한 성생활용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묘사가 나오고, 주인공들 사이에서는 아슬아슬한 수위의 대화가 오간다.

드라마 종영을 기념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성령은 “많은 사람이 쑥스러워할 법한 소재지만, 이런 얘기도 좀 더 가볍게, 유쾌하게 나누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며칠 전에 춘천 사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여성분들이 사우나에서 저희 드라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우리도 성인용품 구경하려 가볼까?’라며 수다를 떠는 데 괜히 뿌듯했죠.”

김성령이 연기한 오금희는 하인을 부리고 살던 집에서 귀한 ‘아씨’ 대접을 받으며 자란 여자다. 집안의 뜻대로 결혼한 남편

의 고향 금제에서 무료한 나날들을 보내던 중, 한정숙의 손에 이끌려 인생 첫 직업을 갖게 된다.

김성령은 “처음부터 소재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며 “여자 배우들끼리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들이 주인공인 드라마 중에 ‘정숙한 세일즈’처럼 속웃 하나 갖고 까르르 웃을 수 있는 드라마가 흔치 않다”며 “신선한 소재를 무겁게 다뤄내다 보니 시청자들도 흥미를 느낄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여자 배우들 몇 명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드라마도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이렇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드라마는 더 드물어요. ‘스키이캐슬’도 여자들 이야기지만, 보다 보면 머리 아픈 이야기잖아요. (웃음) 우리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1988년 연예가 중계 MC로 연예계에 데뷔한 김성령은 드라마 ‘추적자 더 체이서’, ‘아왕’, ‘여왕의 꽃’,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등에 출연했다.

오페라 가수 출신 재벌집 딸, 재벌그룹 회장의 애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로 화려하고 도시적인 역할을 많이 맡아왔지만, 김성령은 오금희처럼 생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이제 더 편하다고 한다.

“편하고, 소소한 일상 연기가 제 나이에에서는 더 보여줄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좀 강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이런 연기도 잘한다고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차기작을 촬영 중인 김성령은 다음 드라마에서 할머니 역을 맡는다. 딸 둘을 휘어잡고 사는 드센 시골 사람 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내가 이제 할머니를 연기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래도 낯설다고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중이 보기에 제가 이제 할머니를 연기할 나이려면,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수밖에 없죠.” /연합뉴스

고려인 연해주 이주 160년 광주가톨릭방송, 22일 특집 다큐



다큐 '고려인 디아스포라 슬픈 아리랑, 우리는 누구입니까' 취재 장면. <광주평화방송 제공>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고려인들은 고국을 떠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를 해야 했다. 생존을 위해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던 고통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오늘날 국적을 얻지 못해 ‘투명인간’의 삶을 사는 동포들도 부지기수다.

올해는 고려인 연해주 이주 160주년 되는 해다. 고려인들의 이주의 역사와 아픔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광주가톨릭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5시 특집 다큐 '고려인 디아스포라 슬픈 아리랑, 우리는 누구입니까'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한다. 제작 양복순·편수민 PD.

1년여의 기획, 제작 등을 통해 만든 다큐는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만나 그들의 애환을 담아냈다. 아울러 고려인 이주 역사적 배경, 이후 국적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무국적 고려인들의 사연 등을 담았다.

이번 다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등과 맞물려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이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고려인들 삶을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복순 PD는 “고려인들은 나라 잃은 설움과 아울러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번 다큐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문화와 이야기를 담았다. 고려인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함께 숙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목 받는 '요리 예능'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이하 '흑백요리사')의 성공 이후 각 방송사가 그 뒤를 이을 요리 예능 프로그램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17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동안 시들했던 요리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JTBC 간판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가 5년 만에 부활한다.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5년 동안 방송됐던 '냉장고를 부탁해'는 신선한 포맷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룩방' (요리하는 방송)의 시초로 불린다

새로 부활하는 '냉장고를 부탁해'는 '흑백요리사'에서 화제를 몰았던 요리사들을 대거 섭외했다.

독특한 캐릭터로 주목받았던 최강록과 '요리하는 동아리' 윤남노, 파이널 라운드까지 진출했던 백악관 국민만찬 셰프 에드

'냉장고를 부탁해' 5년만에 부활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30일 첫 방

워드 리, 단순한 요리로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끌어낸 '급식대기' 이미영 등이 출연한다. '냉장고를 부탁해'의 원년 멤버였던 요리사 최현석, 정호영, 이연복과 만화가 김풍도 출연해 맞붙는다. 이창우 PD, 강운정 작가 등 원년 제작진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ENA도 '흑백요리사' 출신 요리사들을 앞세운 새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는 30일 처음 방송되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어려운 환경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거나 큰 실수로 실패를 경험한 20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장사 경연 프로그램이다. 네 명의 '담임 셰프' 가운데 데이비드 리, 임태훈, 윤남노는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1에서 각각 '고기 강패'와 '철가방 요리사', '요리하는 동아리'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연합뉴스

'아파트' 英 싱글 4주째 상위권

그들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APT.)가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서 4주 연속 최상위권을 지켰다.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1위는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의 '댓츠 소 트루'(That's So True), 2위는 지지 페레즈의 '세일러 송'(Sailor Song)으로 전주와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었다.

'아파트'는 지난달 4위로 '톱 100'에 진입한 뒤 그다음 주 2위를 기록했으며, 이후 2주 연속 3위를 지켰다. 이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K팝 가수의 노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일하다.

'아파트'는 다음 달 공개되는 로제의 첫 정규 솔로앨범 '로지'(rosie)의 선공개 곡이다. 한국 솔 게이밍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노래로, '아파트 아파트'라는 반복되는 소절과 경쾌한 밴드 사운드를 앞세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는 '톱 100'에서 75위를 기록하며 17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블랙핑크 제니의 '만트라'는 98위로 5주 연속 진입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